



왼쪽부터 황주홍 의원, 민주당 김수정, 김승남, 한명진 예비후보, 김하진 바른미래당 예비후보, 이종익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

# 고흥·보성·장흥·강진, 황주홍 3선 달성 가능할까

## 고흥·보성·장흥·강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리턴매치' 성사 여부와 현역인 황주홍 의원의 3선 달성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와 남도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알앤씨치가 지난 16~18일 조사해 22일 발표한 '21대 총선 광주·전남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현역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력 후보들에게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황 의원은 김승남 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30.9%의 지지율을 얻으며 김 전 의원의 지지율 42.3%에 뒤졌다.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더불어민주당)과의 양자대결에서는 30.3%의 지지율로 35.3%의 지지율을 보인 한 전 차장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밀렸다.

신인 가산점(20%)과 여성 가산점(10%)에 공천 획득의 기대를 걸고

있는 김수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 의장(30.5%)과의 대결에서는 34.2%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과 맞붙을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김 전 의원이 29.8%로 1위, 한 전 방사청 차장(25.7%)이 2위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의원은 한 전 차장의 고향인 보성을 제외한 고흥과 장흥, 강진에서 한 전 차장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kbc광주방송과 광주일보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20일까지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를 조사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9.6%)도 황 의원이 여당 후보에게 고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김승남 36.2%, 한명진 25.3%, 김수정 11.1%로 나타난 가운데, 황 의원은 김 전 의원과 가상 대결에선 31.2% 대 43.3%로 김 전 의원에게 뒤졌다.

황 의원은 한 전 차장과의 대결에서도 31.1% 대 36.9%로 밀렸으나 김수정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선 35.4% 대 23.9%로 우세를 보였다.

이보다 앞서 뉴스1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광주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달 17일 고흥과 보성·장흥·강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구 정

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같은 여론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황 의원은 다수의 다른 당 의원들과의 다자대결에서는 우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후를 고려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결코 우위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으로 복귀한 김 전 의원이 이번에 공천장을 쥐고 황

받기 위해서는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보성 출신의 한명진 전 방사청 차장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선 못지 않은 뜨거운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재선을 통해 바닥을 다져온 황주홍 의원의 세력이 강력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전히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반면 황 의원이 소속된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바닥이란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민주당 소속의 대항마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다"며 "아울러 4개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지역 특성상 뚜렷한 후보를 배출하지 못한 장흥지역의 표심을 누가 얻느냐가 민주당 경선과 본선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의 경우 현재 민주당 소속은 김수정, 김승남, 한명진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바른미래당은 김하진(전)제19대 대통령선거 안철수후보 조직총괄 부분부장,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종익 창조마을가꾸기사업 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황주홍 의원은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김경석 기자

### 김승남과 '리턴매치'...민주당 공천 경쟁 '관심'

### 현역 황주홍,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에 고전

### 김수정 후보, 신인 가산점 등에 공천 기대 걸어

### "후보 배출 못한 장흥 표심 누가 얻느냐 관건"

치인식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p, 응답률 21.6%) 결과 차기 국회의원 인물 선호도에서 황 의원이 35.4%로 1위에 올랐고, 김 전 의원은 16.0%로 2위를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와 당을 달리해 리턴매치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김 전 의원은 4년전 국민의당 소속으로 황 의원과 공천 경쟁 끝에 탈락한 아픔이 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